

장외투쟁 사흘째...당내 대응팀 만들고 전국 서명운동 돌입

새정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총력전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사흘째 장외투쟁을 펼친 데 이어 각종 법제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총력전을 이어 갔다.

또 전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공동대응 전선을 형성하기로 하고 합의한 연석회의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새정치연합은 교과서 국정화가 국회의 입법이 아닌 정부 고시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야당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대국민 홍보전에 집중해 국정화 반대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이날 오전 7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일 시위를 진행했으며,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 수요시위'에 참석,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나서는 등 사흘째 장외투쟁 현장에 섰다.

새정치연합은 또 여권의 국정화 추진에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내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플래카드에 대해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범야권 공동대응 연석회의 구성

게시물 가져분 등 법적 조치 나서

현행 교과서는 이적 표현물이 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교과서는 교육부가 김·인정을 통해 교과서로서 적합성을 판정해 합격 받은 도서로, (새누리당 주장은)교육부가 이적단체에 대한 고부·찬양에 동조했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플래카드가 교과서 집필진 등의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고발할 수 있게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또 게시물 가져분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당 지도부 등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당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등의 방해에 대해 '정당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외에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광주시민사회단체 국정화 불복종 선언

광주시민사회단체 민주주의 광주행동(준) 단체 회원들이 1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무전관에서 열린 '한국사 국정교과서 광주시민 1000인 불복종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국사 국정화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 민주주의 광주행동(준) 단체 회원들이 1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무전관에서 열린 '한국사 국정교과서 광주시민 1000인 불복종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국사 국정화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 민주주의 광주행동(준) 단체 회원들이 1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무전관에서 열린 '한국사 국정교과서 광주시민 1000인 불복종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국사 국정화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관한 법률 위반 문제를 고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당내에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 '대응상황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현재 당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이 맡기로 했다.

나아가 새정치연합은 이날부터 삼일위원회별 1인 피케팅 및 서명운동도 전개하며 전국지역위원회는 매일 퇴근시간에 지역별로 서명운동도 진행한다.

새정치연합은 정의당, 천 의원과의 연석회의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주중 시민

사회까지 포함한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원내외 병행 투쟁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결합하는 것이 전면적 장외투쟁에만 치중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결합 방식이나 집회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역사학계 거부 선언 잇따라...집필진 구성 난항

국편, 집필진 후보 타진중...2015년 집필기준 그대로 유지

2017학년도부터 국정으로 전환되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개발 업무를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집필진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국편 관계자는 14일 "다음 달 국정 전환이 확정되는 대로 집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집필할만한 역량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편 관계자는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잠재 가능성이 있는 필진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 등이다.

국편은 오는 11월 5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이 고시되면 집필진 공개모집도 공고할 예정이다.

최근 국편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만든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검정 교과서 집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지만, 국정이라고 해서 굳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

다는 판단에서다.

국편은 시안에서 역사 교과서 내 일본군 위안부나 동북공정 문제를 상세히 서술하도록 한 반면, 현대사 비중은 크게 줄였다. 제주 4·3사건과 6·25전쟁 중 민간인 희생과 같은 전쟁의 피해와 폭력에 관한 내용도 뺐다.

국편 관계자는 "집필기준이 이미 만들어졌고 새로 만들 이유도 시간도 없다"면서 "국정 교과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집필진과는 별개로 조직 내 교과서 개발 업무를 지원할 전담팀도 만든다. 국편에는 44명의 연구관·연구사가 있으며 대부분 역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다.

이런 가운데 학계에서는 새로운 교과서 집필에 불참하겠다는 성명이 이어져 집필진 구성에 난항을 예고했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 13명은 지난 13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제가 오리라 생각지도 않지만, 향후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일정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처신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희대 사학과와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일동도 집필진 불참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초특가 일본여행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 출발

스케줄 : 무안(0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비행기로 399,000원에 간다!~

(선착순 30명 한정)

목요일 출발해요

천하제일 비경...그야말로 '한쪽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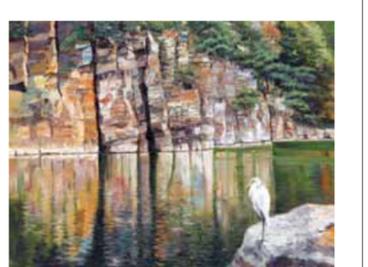


김은영의 '그림 생각' (131) 적벽

얼마 전, 화순 적벽에 다녀왔다. '조선 10경' 중의 하나로 꼽힐 만큼 경치가 뛰어나다는 화순 적벽이 개방된 지 꼭 1년만이었던 것 같다. 뜻밖에도 험하고 굽이도는 산길이어서 심한 버스멀미로 조금 고생스러웠지만 화순 적벽은 말 그대로 비경이었다. 남실거리는 호수, 7km에 이르는 병풍처럼 길게 펼쳐진 절벽, 과연 중국 양쯔강의 적벽과 비견되어 이름 붙여질 만 했다.

그 선경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지른 탄성은 "한 쪽의 그림 같다"였다.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자주 "그림 같다"고 한다. 우리의 감각은 순서가 틀린 것이다. 사실 눈에 보이는 풍경이나 대상을 재현해서 이 대상과 비슷하게 환영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림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미술사학자 빌헬름 보링어(1881~1965)는 논문 '추상과 감정입입'에서 "현실 세계의 미적인 대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와 어울리려는 마음에서 충실한 사실적 재현을 하게 되는 것은 '감정입입'이라는 심리적인 효과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때 그 모습에 동화되어 간직하고 싶은 충동이 예술적 정열을 만나 미술로 승



서기문 작 '물염적벽'(2015년)

화된다.는 말일 것이다. 서기문 작가(전남대 교수)의 '물염적벽'(2015년 작)은 적벽의 바위와 햇빛에 아른거리는 수면에 비친 물결을 그대로 재현하되 작가의 의지로 자연의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있다. 화가면서 드물게 이론가이기도 한 작가답게 작품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그 작품에 대한 필연적인 사유의 이론을 늘 정연하게 정리하곤 하는 작가는 이 작업에서 "인간주의 세계관리를 쓰면서 다소 거친 표현주의를 구사하고 있는 붓터치를 통해 무한한 확장성을 지닌 자연에 꼭 배나 새, 강태공 같은 중심점을 주어 내면적인 구조로 돌려놓았다"고 말한다.

한 쪽의 수채화 같은 실제의 자연을 담은 화가의 그림을 보면, 힘겨운 여정 끝에 만난 비경이어서인지 속세가 아닌 듯 다가왔던 그날 '적벽'의 이미지가 되살아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3일 459,000원 / 549,000원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4일 649,000원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몬대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로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킨타이교** 관광 ▶ 이초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지마 오오도리** ▶ 미야지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초쿠시마 본전** ▶ 미야지마 **오츠크탑, 다카부타이** ▶ 호텔[기타큐슈 1급호텔]

2일차 **히노야마 전망대**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 **아카마시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범루** ▶ 카르스트 지형으로 아름다운 **히라오다이 트레킹(동굴포함)** ▶ 무라사키기와 강 하구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서양식 건물이 모여 있는 **모지코 레토르** ▶ 일본 3대 야경으로 불리는 **사라쿠야마 야경** ▶ 기타큐슈공항 **비니지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 **공동포함사항** 국제선 항공료, 무안 공항세, 전경보험료, 현지 공항세, 유류할증료, 펜션(2인1실) 또는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1억원 여행자보험, **(특전) 선착순 40명 무안공항 일박 수송**

■ **공동불포함사항** 싱글차지, 개인 경비 가이드/기사 경비(30,000원)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